

욕망의 형상과 구원의 관계구조

- 虹影의 장편소설 『K』(1999)와 『阿难』(2002)에 관하여

鄭重釋

目次

- I. 들어가는 말
- II. 금기된 성애와 변질된 사랑
- III. 욕망의 아누스
- IV. 사랑으로 승화된 불륜과 구원으로서의 죽음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간의 욕망과 구원은 인류의 오래된 난제였고 또한 문학의 대상이 되는 소재였다. 인간의 여러 형태의 욕망은 사회 도덕률이나 사회제도와 배치되면서 갈등을 이룬다. 이러한 욕망 중 성적 욕망은 물질 욕망이나 권력 욕망과 달리 인간 무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충족된다는 점 때문에 문학, 심리학, 예술, 정신분석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그만큼 난해한 영역이기도 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도덕률과 사회제도와 배치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프로이트(S. Freud)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 언급한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인간의 삶이 동물적 상태를 뛰어넘어 짐승의 삶과 달라진 것은 인류문명에서였다고 말하며 최초에 문명이 창조된 이유는 자연의 위협 때문이었다고 한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과 박사과정 jsjung28@naver.com

즉, 인류의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문명이 지향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인류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은 서로의 상호관계를 조종하고 물자의 분배를 조정하기 위한 온갖 제도가 생겼고 이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였다. 본능을 자제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모든 문명의 존립 기반이며 문명은 구성원의 강제와 본능 억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공동 생활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무거운 부담으로 생각하고 본능자제를 싫어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은 사실상 문명의 적인 것이다.¹⁾ 따라서 인간 욕망의 자유로운 분출은 문명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공동생활과 비극적 모순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덕률이 인간의 초자아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욕망의 분출은 또 한번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욕망의 비극적 모순관계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등장한다. 구원은 개인의 욕망이 타인과 공동체에서 수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전이된 것을 말하며 이것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면화 된다. 욕망과 구원의 난해한 문제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작가로 중국의 해외파 작가 虹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虹影은 영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해외파 작가이다. 그녀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충칭의 가난한 노동자의 막내딸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버지가 다른, 즉 생부가 따로 있는 사생아였다. 이 때문에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육체적인 고통은 충분히 먹지 못하는 굶주림, 즉 기아였다. 정신적인 고통은 사생아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굶주림이었다. 이러한 이중의 굶주림은 그녀를 작가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자전적 소설인 『굶주린 여자饥饿的女儿』에서 虹影은 자신의 글쓰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굶주린 영혼을 구제해줄 수 있을 것 같

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서울: 열린책들, 2003), 168~180쪽 참조

다고 자술하고 있다. 80년대 말, 虹影은 루쉰문학과 푸단대학 작가반에서 공부하였고 1991년 푸단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대학 동양학과 교수이면서 문학평론가인 趙毅衡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에 거주하면서 전업 작가가 되며 영국에서 첫 장편소설을 쓴다. 虹影은 비록 중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활동하고 해외에서 文名을 떨치는 화인작가가 되었다. 虹影의 문학적 주제는 여성입장에서 본 욕망과 페미니즘에 관한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겪게 되는 욕망과 구원, 사랑과 증오, 평화와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이들 사이의 모순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K』와 『阿難』은 그녀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 앞서 언급하였던 욕망과 구원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경계를 제시하였다는 판단에서 선정하였다. 이 두 작품을 필자는 ‘욕망-구원’의 구조로 분석하고 두 작품에서 보이는 대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금기된 성애와 변질된 사랑

虹影의 장편소설 『K』는 영국시인 줄리언 벨(朱利安·贝尔)이 국립 우한 대학의 초청을 받아 중국 우환에 온 후, 청교수 부인 린(林)과 불륜관계가 생기며 그녀와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여주인공 린은 도가 방중술의 후계자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주류적인 분석은 동양여성과 서양남성의 만남을 통해, 동서 문화의 조우와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²⁾ 잘 훈육된 상류 엘리트 계층이 주요 인물들이고 동서양 지식인 집단의 자유 분명한

2)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齐颖, 『东西方文化邂逅下的爱情困境』, (作家杂志, 2008. 5期.)와 李雪芳, 陈荟瑾, 『与爱情有关的“文化邂逅”』, (济南职业学院学报, 2009. 3期.)를 들 수 있다.

성을 묘사하였다. 소설 『K』³⁾는 동서문화의 조우와 충돌을 주된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육망-구원’의 구조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주인공 줄리언 벨과 린의 성애가 점점 변이 되는 과정과 경로는 ‘육망-구원’의 구조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虹影의 장편소설 『阿難』은 서술자 ‘나’가 작가의 신분으로 인도를 여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나’의 친구이며 홍콩 매스 미디어계의 CEO인 쑤페이(苏霏)의 부탁으로 록 가수 아난(阿難)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록 가수 아난은 정면인물과 반면인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야누스적인 주인공으로 록 가수일 때는 예술을 추구하는 선인으로 등장하지만 가수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면서 재물을 숭상하고 모든 비리와 편법을 자행하는 악인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물인 아난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곳이 인도였다. 서술자 ‘나’는 소설 중반부터 중국 기율검사위원이라는 조사원의 신분을 드러낸다. 따라서 서술자 ‘나’는 예술가 아난을 친구의 부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범죄자 아난을 조사원의 신분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소설 『阿難』의 전체적 구조는 주인공 아난의 육망으로 인한 타락과 그에 대한 구원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석가의 제자 아난존자의 이야기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불경의 아난존자 얘기는 아난다가 수행과 구도생활을 하다가 마등가녀 유혹에 빠지고 다시 석가의 도움으로 득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각 등장인물이 소설 『阿難』의 등장인물과 연결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다. 록 가수 아난은 아난존자에 대응되고 아난의 연인 쑤페이는 아난존자를 유혹했던 마등가녀에 대응되며 아난의 외삼촌이자 힌두교 수행자인 신거(辛格)대령은 석가에 대응될 수 있다.

3) 『K』라는 제목의 소설로 타이완 尔雅出版社에서 1999년 5월에 처음 출판되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2002년 1월에 같은 제목으로 花山文艺出版社에서 출판되었으나 음서라는 이유와 여주인공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의 딸의 고소로 출판이 금지된다. 그 후 2003년 『영국연인英国情人』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물과 배경에 첨삭을 가한 후 春风文艺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면 두 소설에서 나타난 욕망의 형태와 그 異同點을 살펴보자. 『K』의 경우, 줄리언 벨이 청교수 부인 린에게 먼저 접근한다. 줄리언은 여성과 성이 외의 관계는 원하지 않으며 성관계가 만족스럽게 끝나면 서로 구속하지 않고 깨끗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줄리언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여성을 알파벳 A부터 순서를 매기고 있었다. 린은 줄리언에게 K에 해당되는 여성이었고 11번째 연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나 사랑은 없었다. 줄리언에게 여성은 그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린 이 유부녀라는 사실은 줄리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단지 린에게만 문제가 될 뿐이다. ……그는 유부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⁴⁾

줄리언과 린은 서로의 욕망에 충실하며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발전할수록 린이 주동적으로 줄리언을 이끌고 성애를 주도한다. 린이 베이징으로 줄리언을 불러내고 그에게 방중술을 시험한다. 줄리언은 오히려 그녀의 욕망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줄리언과 린은 아편관에 가서 아편을 흡입하면서까지 관계를 맺는다. 그들의 욕망은 성을 매개체로 한 사랑이 없는 욕욕적인 ‘性’의 추구였다. 줄리언이 린과의 잠자리에 서 서술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쾌락에 젖어 그의 품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 육체는 그의 성을 좋아하고 그를 성의 도구로 삼을 뿐, 다른 복잡한 문제나 순결한 성 따위는 개념치 않는 게 분명했다. ……이건 전혀 나쁠 게 없다. 그가 바라는 것과 꼭 들어맞는다. 그의 자유를 빼앗길 일도 없을 테니 얼마나 완벽한가!⁵⁾

4) 林是一個有夫之婦，這對朱利安根本不是一個問題，對林才是一個問題。…他並不認為與一個有夫之婦發生關係，是他的道德有毛病。(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66-67쪽)

5) 這個在他懷裏快樂地蜷縮成一團的肉體，顯然只是喜歡他的性，拿他做性工具，沒有複

그는 린이 시종일관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영어로든 중국어로든 절정에 오를 때조차 그녀는 “나를 사랑해요?”라고 묻지 않았다.⁶⁾

상기 인용문에서 ‘이 욕체’는 린을 얘기한다. 줄리언의 책임지지 않으며 소비적이고 자유로운 애정관을 드러내고 있고 그의 욕망에 부합하는 린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들의 욕망은 도덕률과 위배되는 것이었고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린은 유부녀였다.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욕망에 빠져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소도 남편이 있는 우한에서 떨어진 베이징이었다. 즉, 줄리언과 린의 욕망의 형태는 금지된 성애의 추구였다. 소설 『K』에서 나타나는 기형적 욕망의 특징은 결혼한 여성과 여성편력이 심한 미혼 남성이라는 점이고 그들의 성애에 사랑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소설 『阿難』에 나타난 욕망의 형태는 이와 사뭇 다르다. 주인공 아난 역시 줄리언 벨과 같이 여성 편력이 심한 미혼 남성이었다. 두 소설의 남자 주인공 아난과 줄리언 벨은 이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아난과 그의 연인 쑤페이와의 관계는 결코 금지된 사랑이거나 성애가 아니었다. 그들의 욕망은 사회적 제도나 도덕률에 위배되는 것이 없었다. 아난은 많은 여성을 거쳐 쑤페이를 만났고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어쩌면 아난에게 쑤페이는 줄리언 벨처럼 K번째 여자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육욕적 성향과 애정적 성향이 결합된 온전한 사랑을 한다. 이를 알 수 있는 소설 대목을 살펴보자.

그는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매번 그 여자의 음모를 남겨두었다. ……그녀가 그의 수집품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자 그는 아무 거리

雜의連帶問題, 純然的性。…這不壞, 正中下懷。看來不會剝奪他的自由, 簡直太完美了!(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110쪽)

6) 他注意到, 林始終沒談到愛情二字, 無論英文或是中文, 甚至高潮來到時, 也沒問他“愛不愛我?”(虹影, 위의 책, 110쪽)

낌 없이 자신의 수집품을 들고 나왔다. 아름다운 음모들은 색깔과 재질이 모두 달랐고 빨강색 상자에 담겨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음모는 따로 골동품같이 생긴 조각된 은색 용기에 담겨있었다. 안에는 부드러운 파랑색 벨벳이 깔려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왜 내 것은 따로 담아놓았지요?”

아난은 이 말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상자 두 개를 모두 쏟아 비워버렸다.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는 말했다 “영원히 필요 없어졌어.”

수페이는 아난이 다른 여자와 관계 갖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⁷⁾

아난은 그 이후에 정말로 어떤 여자도 거들떠보지 않았다.⁸⁾

상기 인용문에서 아난이 많은 여성과 사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난의 여성 편력은 쑤페이를 사랑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들의 욕망은 사회제도나 도덕률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 자체에서 변질을 한다. 이것은 아난이나 쑤페이 모두에게 있던 유년기의 상처에 기인한다. 아난의 경우, 고아로 성장하였고 부모를 죽인 원수의 딸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쑤페이는 아버지 없이 성장하였고 아버지를 죽인 집안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이를 설명하는 소설 대목을 살펴보자.

두 사람 모두 유년기의 심리적인 상처가 있었다. 수페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약간 변태적으로 아난에게서 부성애를 찾으려고 하였다. 반대로 아난은 그녀에게서 모성애를 찾으려고 하였다.⁹⁾

7) 他每和一个女人做爱，都留下几根女人的阴毛。…后来苏霏要求看看他的收藏，他也就坦荡荡拿了出來。那些美丽的阴毛，颜色不同质地不同，放在一个红色的盒子里。但是她的阴毛单独用一个古色古香的雕花银器装，里面垫有一层柔软的蓝丝绒。她说：“为什么我单装一盒呢？”阿难听见这话，就跑到厕所里，把两个盒子都倒空。“不用保存了，”他说，“永远不用了。”苏霏明白，阿难是说他不会跟别的女人有染。(虹影，《阿难》，(长沙：湖南文艺出版社，2002)，82쪽)

8) 的却阿难此后不再理睬任何女人。(虹影，위의 책, 83쪽)

아난과 쑤페이(徐佩伊)의 사랑은 그 자체에서 변질되어 발전하며 기형적인 욕망으로 현실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지며 사랑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변질된 사랑이 주로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표면화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두 사람은 또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욕하고 그녀는 울었다. 그는 분노하였다. 어떤 물건이든 손에 닿기만 하면 때려 부수었다. 거울, 창유리 모두 깨졌다. 그는 난폭했으며 신경질적이었다. 그녀를 모질게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 몸을 내리눌렀다. 그리고 그녀 속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고 옷을 입고 도망쳤다.¹⁰⁾

시작은 매우 좋았으나 끝은 더 이상 망칠 수 없을 만큼 잘못되었다.¹¹⁾

상기 두 번째 인용문은 아난과 쑤페이의 사랑을 두고 그들이 자술하는 내용이다. 두 소설 『K』와 『阿難』에서 욕망추구로서 사랑은 이처럼 차별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K』에서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阿難』에서는 허락된 사랑을 하지만 사랑 자체가 변질된다. 『K』가 린을 위주로 한 여성위주의 성애¹²⁾를 표현하고 있다면 『阿難』은 아난을 중심으로 한 남성중심의 성애를 표

9) 两人都有幼年心理创伤, 她没有父爱, 她有点变态地在他身上寻找父爱, 相反他也同样在她身上寻找母爱。(虹影, 위의 책, 248쪽)

10) 两人又争吵起来, 他骂她, 她哭了。他愤怒了, 手碰到什么东西, 就砸什么, 镜子和窗玻璃都碎了。他狂暴而神经质, 把她狠狠地推倒在地上, 压在她身上, 进入她, 完全变了个人。她竭尽全力才推开他, 穿上衣服跑掉了。(虹影, 위의 책, 83쪽)

11) 开始得太好, 结束就糟到不能再糟。(虹影, 『阿難』,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2002), 84쪽)

12) 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의 욕망에 빠져 죽을지 몰라’-他想, ‘我恐怕會死在這個女人的性慾之中。(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98쪽)/ 그는 이토록 여성중심적인 성이론은 처음 들어보았다. 남성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중국 사회에서 뜻밖에도 방중술(房中術)은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듯했다.-他第一次聽到這樣明確以女性中心的說法, 中國社會的男性中心主義, 到了房中術裏, 卻要求陽配合陰。(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106쪽)

현하고 있다. 『K』의 린이 소극적인 성애에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성애로 변했다면 『阿難』에서 아난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성애를 주도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추구로서 사랑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K』의 린의 경우, 그녀는 교수를 남편으로 두고 있었고 자신도 서양의 교육을 받은 현대 지식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불륜과 일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작가 虹影의 소설 창작 모티브 구실을 하기위해 린은 불륜과 일탈을 감행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성욕을 설명하면서 한 여성의 성욕은 그녀와 처음 성행위를 한 남자에게 분출되지만 동시에 남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현실적인 예로 첫 결혼에서 계속 불감증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여성들이, 첫 번째 결혼이 파경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아내가 되어 두 번째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경우가 보통 이상으로 많다고 프로이트는 지적한다. 즉 자신의 순결을 앗아간 것에 대한 적개심이 첫 번째 대상에서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에게는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의 이러한 심리가 드러난 문학적 예로 프로이트는 헤벨의 비극 『주디스와 홀로페르네스』를 꼽고 있다. 앗시리아 장군이 주디스가 살고 있던 도시를 점령하자 그녀는 자신의 미모로 그를 유혹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 주디스는 자신의 성욕의 동기를 감추기 위해 애국적인 동기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주디스는 앗시리아 장군에게 순결을 빼앗긴 후 격분 속에 그의 머리를 내리친다. 목을 자르는 행위는 프로이트 식으로 유추하면 거세를 상징한다. 즉, 첫 상대에게 여성의 적대적인 행위가 폭발한 것으로 프로이트는 분석하였다.¹³⁾ 이러한 유추에 따르면 여성에게는 성애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남성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린이 줄리언 벨과 성애를 나누는 것은 여성의 성애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때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단지 그러한 욕망이 사회 제도와 도덕률 때문에 억압되어왔

13)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1996), 154-158쪽 참조

던 것이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구속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서로 대립되고 모순된 감정이 공존한다고 프로이트는 지적한다.¹⁴⁾ 린의 불륜과 일탈은 이러한 설명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줄리언 벨과 아난에서 보이는 여성 편력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와 라캉(J. Lacan)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는 남성에게는 여성과 달리 성적 대상을 격하시키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여성은 성적 대상을 격하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랑에 있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며 어머니나 누이와의 근친상간이라는 생각에 타협한 사람이라고 프로이트는 지적한다. 프로이트의 전체 정신분석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심인성 발기부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¹⁵⁾ 라캉은 사랑의 요구는 연인들의 갈망을 채워주는커녕 점점 더 큰 욕망의 회로 속으로 밀어 넣어 두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에 손안에 넣을 수가 없고 사랑은 원초적인 힘이요 대상을 향한 요구(demand)라고 한다. 그러나 연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적 욕구(need)의 충족일 뿐이며 요구는 추상적인 것이고 욕구는 구체적인 것이기에 그 차액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액이 연인들을 외로움에 떨게 하고 결핍에 시달리게 하고 끝없는 욕망 속을 헤매이게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줄리언 벨과 아난의 여성편력은 라캉에 의하면 추상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욕구의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남성으로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성립할 것이다. 이렇게 『K』와 『阿難』의 주인공들의 성애는 욕망의 분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욕망은 공동체를 이루는 문명, 도덕률, 공공의 이익과 배리관계를 지닌다.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1996), 157쪽

15)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169-171쪽 참조

16) 자크 라캉, 권택영 외 역, 『욕망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21쪽

이 때문에 이들의 욕망은 구원과 회귀라는 주제에 부딪치게 된다. 두 소설에서 욕망추구로서 성애는 나름대로 각각의 장애물이 있었다. 줄리언 벨과 린의 경우, 우한에 있는 청교수가 장애물이었고 아난과 쑤페이 경우 그들 선대의 죄업이 장애물이었다. 프로이트는 ‘불륜을 꿈꾸는 심리’에서 성애적 욕구의 심리적 가치가 성적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순간부터 감소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리비도를 한층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남성들은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 관습적인 장애물을 세워왔다고 말한다.¹⁷⁾ 두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성애적 욕망에 충실한 것도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은 각각의 장애물 때문에 욕망이 좌절되며 구원받아야 했다. 두 소설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Ⅲ. 욕망의 야누스

두 소설에서 모두 야누스적인 이중성격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K』와 『阿難』의 공통점이다.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야누스신과 같이 이면이 존재하는 양가적이며 이중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또한 그들의 이면적 성향에는 욕망이 투영되어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K』를 보자. 여주인공 린은 베이징의 오래된 대저택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청나라 궁정의 翰林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영국인이 세운 학교에 보내져 서양식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도가의 기본 수양과 방중술을 배웠다. 그녀는 1930년대 중국의 가장 표준적인 지식인이자 현대여성이었다. 또한 영문과 주임인 청교수의 처로서 현명하고 정숙한 가정주부의 형상을

17)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고대 문명의 쇠퇴기에는 성적 만족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없어지는데 그에 따라 사랑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고 인생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1996), 173쪽)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열정, 욕망, 자유를 향한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생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린 앞에 줄리언 벨이 아니고 다른 남성이 나타났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줄리언과 비슷한 성질의 다른 남성이 나타났다면 린은 똑같이 격렬한 성애에 빠졌을 것이다. 줄리언과 비슷한 성질이란 자유로운 연애관을 말하며 서로 구속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상대를 의미한다. 린은 서양식 교육으로 훈육되어 서방의 자유주의 사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달리 말하면 동양의 외피를 가지고 있는 서양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지성적인 린이 욕망의 이면을 나타내는 것은 줄리언 벨과 성애에 빠지면서부터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남편을 배반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도덕 관념을 저버린다. 중국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줄리언과 불륜을 저질러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중술과 미신이었다. 방중술은 소설에서 여성 위주의 성애관을 펼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미신이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소설 대목을 살펴보자.

“本命年(本命年 : 자기 띠에 해당하는 해)에는 진례에 어긋나는 섹스를 하면 안 된대요. 예측하기 힘든 액운을 당한다고들 하죠.”¹⁸⁾

상기 인용문은 린의 말이다. 서양식 교육을 받고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미신을 믿는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린의 야누스적인 이면은 줄리언과 사귀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음 인용문은 줄리언 벨이 린의 계획에 의해 베이징으로 가서 린을 처음 대하는 장면이다. 우한에서의 그녀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과연 린이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대단히 화려했다. ……우한의 지식인 여성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보고 멍해졌다.¹⁹⁾

18) 本命年, 應禁違例性事, 會有難以預料的災禍。(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170쪽)

19) 林果然已站在門口看著他。她穿著非常豔麗的服裝, …那個武漢女知識分子無影無踪,

린은 이후 소설의 전개에서 청교수 부인으로서의 모습과는 많이 대조되는 면을 보여준다. 린의 묘사에서 작가 虹影은 방중술을 이용하여 여성중심의 성애관에 뛰어난 문학적 천착을 보여주고 있다. 줄리언과 린의 관계는 자유분방한 줄리언이 린을 11번째 상대인 'K'로 인식하는 것에 시작하였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모든 애정행각은 줄리언이 주도하고 린은 수동적인 불륜을 즐길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후 전개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줄리언은 린을 보면서 세상에 그녀를 만족시켜 줄 남자는 없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리고 소녀시절, 그 후 결혼 뒤의 나날까지 포함해 몸과 마음이 적막함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느낀다. 린의 욕망이 여과없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에서 린의 야누스적인 일면을 살펴볼 수 있겠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그녀의 다른 이면을 보고 줄리언 벨이 되려는 말이다.

그토록 얌전하던 이 지식인 여성이, 부끄러움을 타던 이 중국의 맨스필드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여자였다니!²⁰⁾

소설 서사 자체에서 린이 야누스적인 인물인 것을 시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阿難』의 경우를 보자. 주인공 아난 역시 야누스적인 인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뚜렷이 구분되는 인물이다. 이 소설의 경우 인물의 양가적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명칭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즉, 예술을 지향하는 록 가수이며 선한 이미지로는 '아난'을, 물질을 숭배하고 타락한 사업가로는 '황야렌'으로 명명하고 있다. 정면인물인 '아난'은 지고한 예술을 추구하는 록 가수, 여성들의 우상의 대상으로 묘사되며 선과 미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소설 속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아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난의 긴 머리가 어깨에 걸쳐 있는 것, 손으로 기타를 감싸고 있는

他一下看傻了。(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82쪽)

20) 林, 一個那麼正經的女知識分子, 一個原來那麼羞澀的中國的曼殊非兒, 怎麼會是這樣一個永遠不會性滿足的女人?(虹影, 위의 책, 98쪽)

것,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 한줄기 빛이 그의 몸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목소리는 상당히 나지막하였고 웃는 얼굴은 수줍음을 탔다.²¹⁾

상기 인용문은 아난이 록 가수로서 공연할 때의 모습이다. 긴머리와 기타로 예술가의 형상을, 수줍은 웃는 얼굴로 선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반면, 아난의 부정적인 면은 그가 예술계를 떠나고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 묘사된다. 사업가 ‘황야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난의 다른 이면인 황야렌은 불법 자금대출, 부동산 투기, 밀수, 관료 매수, 관료들에게 향락제공 등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관련된 소설 속 서술을 살펴보자.

황야렌은 밀천없이 폭리를 취하는 출판 사업을 자제하려고 하였으나 인쇄공장의 기계들은 마치 종이돈을 직접 찍어내듯이 밤낮으로 설새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보통 담배 200만 상자를 밀수하였고 세관에 신고한 수입수량은 단지 100만 상자였다.……황야렌은 수하의 전문 전담자를 관련 도시의 거물급 인사들에게 각각 붙여 태국과 홍콩일대를 모시고 다니며 여행하도록 지시하였다²²⁾

아난의 이러한 모습은 소설 『K』에서 교수 부인으로서 정숙하고 지적인 린이 전혀 다른 이면을 보여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소설 『阿難』에서는 이러한 아난의 야누스적인 양가성에 대해 서술자인 ‘나’가 직접 독백하는 구절도 나온다.

황야렌, 너는 아난의 이미지를 철저히 망가뜨렸어.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어!²³⁾

21) 只是远远看到阿难长发披肩, 手抱吉他, 静静地坐在那里, 一柱光打在他身上……声音相当低沉, 笑容有点腼腆。(虹影, 『阿难』,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2002), 27쪽)

22) 黄亚连控制了无本暴利的印纸片生意, 一个个印刷厂的机器全在昼夜滚动, 就像直接在印钞票。…常常是走私香烟200万箱, 申报进口数才一百万箱。…他不惜指使手下人专门将有名城市的头面人物分别专人陪同安排到香港泰国一周游。(虹影, 『阿难』,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2002), 149, 151, 152쪽)

그렇다면 인물의 이러한 양면성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칼 융(C.G. Jung)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 융의 이론 중 ‘그림자 이론’은 사람의 이중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 이 중 ‘그림자’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고 자아의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 의식은 그림자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스스로 인격자인 양 확신하는 성직자나 교사가 그와는 전혀 다른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 사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²⁴⁾ 『K』의 린이 줄리언을 만나면서 보여준 이면이 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린의 의식이 그림자를 억압해 왔고 그 그림자는 린의 자아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阿難』의 황야렌이 아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아난’이란 자아의 어두운 면이 바로 황야렌인 것이다.

IV. 사랑으로 승화된 불륜과 구원으로서의 죽음

앞장에서 필자는 『K』와 『阿難』에 나타난 욕망 형태의 異同點을 확인해 보았다. 같은 욕망이지만 한 작품은 금지된 불륜적 사랑이었고 다른 한 작품은 허락되었지만 그 자체에서 변질되는 사랑이었다. 또한 욕망 주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욕망에 대해 야누스적인 이중성과 양가성의 이면을 지닌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욕망 주체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다시 사회제도와 도덕률에 부합하는 회귀에 이르는가? 이들이 구원되는 패턴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K』의 경우, 린과 줄리언 벨의 욕욕적인 성애 추구라는 욕망은 그 욕망이 사랑으로 변화하면서 구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들 둘의 사랑은 성애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관계를 하고 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23) 黄亚连, 你彻底毁了阿难, 我怎么会宽恕你!?(虹影, 위의 책, 154쪽)

24) C.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서울: 솔출판사, 2004), 51쪽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고 쾌락추구만을 위한 관계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애는 점차 사랑으로 변하고 그 사랑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들의 욕망이 회귀하고 구원되는 과정을 소설 대목에서 살펴보자.

린이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²⁵⁾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해요. 당신은 그 일을 이야기하길 원치 않잖아요.”

린이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줄리언은 “알았어요, 알았어”라고 얼버무렸다.²⁶⁾

상기 첫 번째 인용문에서 해결방법은 결혼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린이 직접 결혼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의 성애는 불륜에서 시작되었지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문명의 공인을 받고자 한다. 게다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공인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생기게 된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안돼요, 난 당신이 어디에 있는 함께할 거예요.” 그녀가 극단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린의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했지만 점차 평정을 잃어갔다. 목소리가 떨리더니, 급기야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²⁷⁾

그는 진작 이점을 느꼈다. 지금 그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있다.²⁸⁾

25) 林平心靜氣地說, “如果我們真正相愛, 就得有個解決的辦法了。”(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181쪽)

26) “這樣你就得和我結婚。我以為你是不願談這事的。”林不無怨尤地說。朱利安說“好, 好。”(虹影, 위의 책, 177쪽)

27) “不, 你在哪裏, 我就在哪裏。”她開始說絕話。…這是朱利安第一次看到林失去自制力。開始, 她還勉強地微笑著說話, 後來, 就無法維持鎮靜。她聲音發抖, 最後幾乎是聲淚俱下。(虹影, 위의 책, 181-182쪽)

한 시간의 밀회, 줄리언은 비로소 그것이 자신에게 욕욕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²⁹⁾

상기 첫 번째 인용문은 린이 자신의 사랑하는 감정을 줄리언에게 호소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줄리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녀를 계속 'K'로 인식한다. 그러던 그에게도 심리적인 변화가 오며 자신이 린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용문이다. 마침내 줄리언은 린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러한 심경을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자.

그녀에게 뜻밖의 환희를 안겨줄 소식을 전하려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녀가 원하는 걸 다 주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³⁰⁾

상기 인용문에서 '뜻밖의 소식'이나 '결심'은 줄리언이 린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줄리언이 결혼을 결심한 동시에 그들의 사랑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린의 남편 청교수에게 그들의 불륜이 발각되며 줄리언과 린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소설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은 동·서양 문화의 부조화와 차이라는 함의도 숨어있다. 이러한 의미는 본고에서 논외로 하기에 다루지는 않겠다. 결국 줄리언은 중국을 떠나고 린은 자살을 택한다. 그들의 욕망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성과 사랑이 별개라는 불륜에서 성과 사랑이 일치하는 애정으로 전이되는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린과 줄리언의 관계가 욕망에서 사랑으로 변이된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탈구조주의 입장을 주목해 보자. 해체주의

28) 他早就意識到這點了, 這刻更意識到這點。我最愛的, 我就毀壞。(虹影, 위의 책, 199쪽)

29) 一個小時的偷情, 朱利安這才明白, 對他來說, 不僅僅是肉慾的需要。(虹影, 위의 책, 212쪽)

30) 他本想等做愛結束告訴她, 給她一個意外的驚喜。他已經下了決心, 她要的, 他都會給她, 只要兩人能在一起。(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253쪽)

(deconstruction)는 고전적 구조주의가 사용하던 이원적 대립관계들에 주목하고 이를 이데올로기의 특유한 사유방식에 적용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의 대립물이요, 他者이다.³¹⁾ 따라서 린은 줄리언의 대립물이고 타자라고 볼 수 있다. 린은 비남성이고, 결합있는 남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줄리언이 아닌 것의 이미지로서 줄리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린은 본질적으로 줄리언을 상기시켜주는 타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애가 사랑으로 발전되는 것은 린이 전혀 상관없는 타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줄리언을 상기시켜주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프로이트의 ‘본능과 본능의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본능을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신체 기관 내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달하는 자극의 심리적 대표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랑을 다른 본능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본능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며 오히려 감정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성적 성향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간주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사랑이란 자아가 신체 기관의 쾌락을 얻음으로써 본능 충동의 일부를 자가성애적으로 만족시키는 능력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보이던 사랑이 나중에는 대상을 향하게 되고, 그 대상은 확장된 자아에 편입된다. 쾌락을 주는 대상이 발산하는 힘을 우리는 ‘매력’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쾌락의 근원으로 판명된 대상은 사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³²⁾ 따라서 사랑은 성적본능에서 출발하지만 결코 성적본능 자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자아와 그 성적 대상의 관계가 ‘사랑’이며 여기에서 성적 대상은 좁은 의미의 성적 대상과 승화된 성적 본능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고 프로이트는 지적한다.³³⁾ 이러한 ‘본능과

31) 테리글턴,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6), 158-170쪽 참조

32)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무의식에 관하여』, (서울: 열린책들, 1997), 107-132쪽 참조

33)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129쪽

본능의 변화'가 린과 줄리언의 사랑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성애는 성적 본능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본능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로의 대상이 승화된 성적 본능의 욕구를 만족시켰고 또한 확장된 자아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본능이 신체기관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이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줄리언과 린의 구원과정이었다.

그러면 『阿難』의 주인공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까? 아난과 쑤페이
의 구원과정은 줄리언과 린의 것과는 사뭇 다른 과정을 거친다. 아난의 타락에 대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은 쑤페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으로 아난을 구원하려고 한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K』와 동일하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질거야. 그를 구해야 돼.³⁴⁾

상기 인용문은 쑤페이가 서술자 '나'에게 말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아난을 사랑하였으며 자신의 사랑으로 '황야렌'을 '아난'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하지만 아난은 쑤페이와의 사랑으로 구원되지 못한다. 처음부터 그들의 사랑은 불륜이 아니었을 뿐더러 사랑 자체가 변질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다음으로 인도라는 배경을 주목해보자. 아난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자가 된 후, 도피한 곳은 종교의 땅 인도였다. 아난은 종교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 갠지스강에서 12년마다 열리는 콤브멜라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인간을 죄업에서 구원해 줄 종교 자체가 세속화되고 상업화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난의 죄업은 갠지스강물에 담그는 의식으로는 씻어낼 수 없다는 의식에 봉착한다. 이러한 아난의 죄업과 종교의 아이러니를 살펴볼 수 있는 소설 대목을 살펴보자.

34) 他会身心崩溃。你要救他！(虹影, 『阿难』,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2002), 113쪽)

황야렌이 아난으로 변하려고 고택해苦海 속에서 고개를 돌려도 사실 너무 늦은 것이다.³⁵⁾

갠지스강에서 죄가 씻어진다면 나 역시 해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그의 죄-만약 죄가 있다면 경제나 형사상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를 가리킬 것이다-는 갠지스강물로 씻어낼 수 없다.³⁶⁾

상기 인용문은 서술자 ‘나’가 아난의 죄업에 대해 생각하는 구절이다. 서술자는 종교 행위는 가식적인 것이며 만약 종교 행위로 죄가 씻어진다면 자신은 해탈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종교의 기능상실과 종교와 죄의 배리관계 때문에 아난은 종교행사-쿰브멜라에서 죽음으로써 구원받고 회귀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아난은 갠지스강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다. 하기 인용문은 아난이 자살하는 장면이다.

나는 강을 가리키며 크게 소리쳤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요. 자살이요! 빨리 구조해야 해요! 빨리요!”…… 아난은 일찌감치 보이지 않았다.³⁷⁾

아난이 물에 뛰어들어 깊숙이 잠기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치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아난이 자살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쉰페이갠지스강에 갑자기 등장하여 그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녀가 사랑으로 아난을 구원하고 ‘황야렌’을 ‘아난’으로 회귀시키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쉰페이는 아난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한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35) 黄亚连要变回阿难, 苦海回头也实在是太晚了。(虹影, 위의 책, 250쪽)

36) 如此一来, 我也得到解脱…他的罪—如果有罪, 不是指经济上刑事上的罪, 而是灵魂上的罪—不可能用恒河水洗净。(虹影, 위의 책, 249쪽)

37) 我指着河水大声说, “有人自杀, 有人自杀! 快救! 快救!”……阿难早就不见了。(虹影, 『阿难』,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2002), 260쪽)

아난은 다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고 쭈페이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세찬 물살은 무수한 손가락과 같이 그녀의 옷을 잡아당겼고 그녀는 빨리 헤엄칠 수 없었다.³⁸⁾

상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쭈페이는 사랑으로 아난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서로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쭈페이도 자살을 하는데, 결국 소설 『阿難』의 주인공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였다.

그럼, 이들이 욕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어떻게 죽음이 구원이 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라캉의 ‘죽음’에 대한 언급과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을 넘어서’를 주목해 볼만하다. 라캉에게 있어 욕망은 환유이고 욕망의 대상은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대상을 향해 가고 또 간다고 한다.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한다.³⁹⁾

프로이트 역시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하여 이러한 라캉의 논의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 그는 ‘죽음 본능’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본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본능을 ‘유기적 신축적이고 유기적 생명체 속에 있는 慣性的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⁴⁰⁾ 따라서 본능은 변화와 발전을 향한 추진력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생명체의 보수적 성격의 표현으로 정의된다. 모든 본능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되어 유기체의 첫 번째 본능인 무생물 상태[죽음]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생기게 된다. 죽음은 유기체가 이전의 상태 즉, 무기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며 유기체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기체가 발달하는 현상은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니다. 유기체의 발

38) 阿難重新朝深水里走, 苏霏试图跳跃过去扑抓他, 但是没有用, 湍急的河水像无数手指抓住她的衣服, 她无法跑快。(虹影, 위의 책, 259쪽)

39) 자크 라캉, 권택영 외 역, 『욕망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19쪽

40)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51쪽

달은 외부의 장애와 영향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본능을 자아본능이라고 하며 이는 성적본능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자아본능은 무생물이 생명을 얻음으로 생기고 그 무생물적 상태를 복원하려는 본능이다. 반면 성적 본능은 두 생식세포의 결합이며 생명본능이다. 삶의 궁극적 목표는 죽음, 즉 자아가 손상받을 수 없는 생명 이전의 축복스런 상태로의 회귀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이 끝없이 집착하는 에로스는 죽음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꼴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죽음본능은 상실이나 부재상태로 환원해 말할 수 있으며 욕망이란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 의해 자극되기 때문이다. 상실은 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것이기도 하다.⁴¹⁾ 이러한 ‘죽음본능’이 아난과 쑤페이에게 적용될 수 있다. 아난의 구원은 그가 영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본능이었다. 이러한 회귀본능은 최초의 무생물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무기물의 상태가 바로 조금도 영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본능이 생명본능을 압도했으며 아난과 쑤페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생물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죽음은 모든 욕망이 충족된 상태로 변이된 것이고 승화된 것이다. 이것이 아난과 쑤페이의 구원이었다. 두 작품 『K』와 『阿難』에서 구원되는 과정은 이처럼 차이가 있다. 『K』가 욕망에서 사랑으로 구원되었다면 『阿難』은 욕망에서 죽음으로 구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나오는 말

이상으로 虹影의 장편소설 『K』와 『阿難』에서 나타난 ‘욕망—구원’의 관계구조와 메커니즘을 ‘금기된 성애와 변질된 사랑’, ‘욕망의 야누스’, ‘사랑으로 승

41)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54-89쪽 참조

화된 불륜과 구원으로서의 죽음'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장편소설이 모두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처리하는 방식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각기 특색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소설에서 나타난 욕망은 모두 성적본능을 위주로 하고 있다. 『K』의 경우, 욕망은 불륜 관계의 성애였다. 즉, 결혼한 여성과 여성편력 이 심한 미혼 남성사이의 불륜이었고 그들의 성애에는 사랑이 없었다. 줄리언과 린의 관계가 이러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았다. 『阿難』의 경우, 욕망은 사랑 자체의 변질이었다. 그리고 사람 인성의 이중성으로 인한 범죄와 타락이었다. 아난이 이러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았다. 『K』와 『阿難』의 욕망 주체 공통점으로 주인공 린과 아난이 모두 욕망에 대해 이중성을 띠는 야누스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두 인물은 양가적인 성격을 가졌고 자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열등한 인격은 강한 욕망에 지배받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린의 이면은 줄리언과의 관계에서 여과없이 나타났고 아난의 이면은 썬페이와의 사랑이 변질되면서 또 그가 사업가로 변모하면서 나타났다.

『K』와 『阿難』두 소설은 처음에 모두 욕망에 관한 서사를 하고 있으며 후반부에 가서는 이들 욕망이 구원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두 소설 모두 '욕망-구원'이라는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과정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K』에서 묘사된 욕망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된다. 다시 말하면 쾌락추구의 불륜적 성애가 서로가 상대방을 상기시켜주는 타자가 되며 승화된 성적본능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이러한 본능은 확장된 자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다. 『阿難』에서 묘사된 욕망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된다. 아난의 타락을 썬페이가 자신의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또한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종교의 세속화와 상업화로 인해 이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아난을 욕망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영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회귀본능이었고 이 회귀본능은 최초의 무기물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죽음본능이었다. 죽음이 구원을 의미하는 이유는 무생물상태는 자아가 손상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작가 虹影은 두 장편소설을 통해 인간의 욕망 형상에 대해 작가 개성이 드러나는 뛰어난 문학적 재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욕망이 해결되는 방식인 구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비록 ‘욕망—구원’이라는 틀로써 두 작품을 분석하였지만 두 작품 모두 이러한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가령, 『K』의 주인공들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만 『阿難』의 주인공들과 같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 『K』의 린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줄리언의 환상을 보는데, 이는 아난의 죽음과는 대비를 이루며 린이 ‘사랑’으로 구원된다는 의미를 더 확실히 해준다. 하지만 『K』의 주인공들이 헤어지며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소설이 ‘사랑’이라는 주제의식 이외에 동·서양의 이질적 문화 때문이라는 함의도 품고 있다. 이러한 ‘욕망—구원’의 구조로써 설명할 수 없는 문학적 함의는 차후 당대문학의 의미 있는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虹影, 『阿难』,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2002.
- 虹影, 『K』, 臺灣: 爾雅出版社, 1997.
- 蔡榕滨, 『虹影《阿难》浅析』, 重庆科技学院学报, 2008. 第2期
- 齐颖, 『东西方文化邂逅下的爱情困境』, 作家杂志, 2008. 第5期
- 李雪芳, 陈荟瑾, 『与爱情有关的“文化邂逅”』, 济南职业学院学报, 2009. 第3期
- 李凤青, 『试论虹影小说的女性欲望叙事』, 批评与阐释·当代文坛, 2007. 第3期
- 温儒敏·赵祖谟 主编, 『国现当代文学专题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2.
- 严家炎, 『中国现代小说流派史』,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95.
- 吴秀明 主编, 『中国当代文学史写真』, 杭州: 浙江大学出版社, 2003.
- 홍영, 김택규 역, 『영국연인』, 서울: 한길사, 2005.
- 전스취, 노정은·박난영 역, 『중국당대문학사』, 서울: 문학동네, 2008.
- 김시준, 『중국당대문학사』, 서울: 소명출판, 2005.
-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 서울: 동녘, 2006.
- 黄修己,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역, 『중국현대문학발전사』, 서울: 범우사, 1991.
-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정신분석 강의, 상』, 서울: 열린책들, 199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정신분석 강의, 하』, 서울: 열린책들, 1997.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책들, 1996.
-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 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무의식에 관하여』, 서울: 열린책들, 1997.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속의 불만』, 서울: 열린책들, 2003.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서울: 열린책들, 2003.
- C.G. 융,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서울: 솔출판사, 2004.

자크 라캉, 권택영·민승기·이미선 역, 『욕망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테리이글턴, 김명환·정남영·장남수 역, 『문학이론입문』,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6.

〈Abstract〉

A Shape of Desire and Related Structure of Salvation

- Regarding Hong-Ying's Novel 『K』(1999) and 『Ananda』(2002)

Chung, Joong-Seok

This paper mainly studied the 'desire-salvation' related structure which appeared in Hong-Ying's novel 『K』and 『Ananda』. Although 『K』and 『Ananda』are the novels which subject is desir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hape of desire and the process of salvation. The desire of novel 『K』is an illicit love affair which sex instinct takes precedence. The desire of novel 『Ananda』 is that love itself degenerates into deformed love, though the love is approved by morals. The process of salvation from these desire also shows up the differences. Regarding 『K』, it is the process of salvation that the extramarital affair of main character changes into love. Regarding 『Ananda』, it is the process of salvation that the corruption of main character returns to innocence by death. Why these process of salvation have to be gone through? How these process mean a salvation? As to 『K』, analyzed it making use of the 'Instinct and Instinct-Change' theory of Sigmund Freud. As to 『Ananda』, analyzed it making use of the 'Death Instinct' theory of Sigmund Freud which is mentioned in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Key Words : desire, salvation, illicit love, instinct change, death instinct, S. Freud

투 고 일 : 2010. 5. 10. / 심 사 일 : 2010. 5. 20. ~ 2010. 6. 10. / 게재확정일 : 2010. 6. 15.